

사람 발길 뜬 전남 섬은 '인권사각지대'

경찰, 신안 '염전 노예' 계기 김양식장 등 일제 조사

실종·가출·채임 근로자 등 전국 370명 발견

전남 무려 223명...지속적 실태점검 강화해야

신안 '섬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던 '일부 염전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사람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섬 특유의 폐쇄성이 임금 체불·감금·폭행 등 인권 유린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적지 않아 당국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경찰청은 3일 신안에서 발생한 '염

전 노예' 사건 이후, 전남을 비롯, 전국 염전과 김양식장, 축사·수용시설 등에 대한 일제 수색을 벌여 임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107명과 실종·가출인 102명 등 모두 234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 수배자(88명)·불법채류자(7명) 등을 포함, 모두 370명을 발견해 가족·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청의 경우 이번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근로자만 106명을 발견, 전국에서 임금 체불 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경찰이 발견한 실종·가출·임금체불 근로자 등 370명 중 223명이 전남청 조사로 발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남 섬 지역의 '인권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 몇 년간 수 차례 이뤄졌던 경찰의 섬 지역 실태조사가 결함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남에서 발견된 임금 체불 근로자(106명)가 받지 못한 급여가 11억원에 이르는데, 이들 대부분(94명)이 염전 근로자라는 점에서 '염전 노예'가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목포(809개소)·영광(142개소)·해남(24개소) 등 전남 염전 998개소에 대한 단속 결과를 감안하면 수백만~수천만원의 임금을 떼인 근로자가 전남 염전 10곳에 1명가량 있었다는 셈이다.

약력 업주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전남경찰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청각장애를 겪는 장애인 A(42·청각장애 4급)씨를 채용, 7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준사기 등)로 사업주 홍모(55)씨를 조사중이다. 홍씨는 경찰 점검 사실을 알고 목포에 오피스텔을 빌려 A씨를 10일간 감금하는가 하면, 급기야 경찰 단속을 피해 A씨를 부친행 고속버스에 태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섬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전남청

의 '도서 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중심으로 7개 경찰서에 설치된 전담 수사팀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 실태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그동안 인력 부족을 내세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실태 점검 등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고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은 이의 폭행, 감금 행위를 비롯, 장애인 수당을 가로채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업주 15명을 입건하는 한편, 관련법 위반 혐의로 20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진만 복식 '개불축제'

3일 오후 강진군 신전면 강진만 마을 공동어장인 복섬에서 사초리 주민들이 개불을 잡고 있다. 사초리 해변공원 일원에서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제1회 개불축제가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고교배정 특정학교 쏠림현상 여전

9개 고교 분석, 상위 8% 배정률 14.7%~2.8% 편차

시교육청, 성적등급별 배정방식 도입 불구 기대 못미쳐

올해도 광주지역 고교 배정에서 특정학교 상위권 쏠림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12~2014년 광주지역 9개 고교에 대한 배정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올

해 내신성적 상위 8% 이내 학생이 많이 배정된 학교는 14.68%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학교는 2.76%에 그쳤다.

내신성적 상위 8% 이내 학생이 100명이었다면 많이 배정된 학교에는 15명

이, 작게 배정된 학교에는 3명만이 진학했다는 말이다.

이는 배정에서 성적을 반영하지 않았던 2012년과 비교(최고 14.73%, 최저 3.33%)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상위권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성적 등급별로 고르게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특정학교 선호도

가 여전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간 성적분포의 표준편차가 2012년 2.47에서 2014년 1.78로 낮아져 성적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고교 배정에서 상위 8% 이내 학생들을 가장 많이 배정받은 사립 A고는 성적지수가 반영된 2013년에는 12.11%로, 2014년에는 8%로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상위 8% 이내 학생비율이 3.33%에 불과했던 공립 A고는 2013년

5.53%로, 2014년 6.65%로 높아졌다.

이들 학교 9곳 모두 차이는 있지만 상위권 비율이 높았던 학교는 성적지수 도입 이후 낮아지고, 낮았던 학교는 높아져 성적 지수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성적지수가 도입되지 않았던 2012학년도 고교배정 당시 성적 상위 8% 이내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던 사립학교 3곳과 가장 낮은 공·사립학교 3곳씩 모두 9개 학교를 선정해 성적지수 반영 전후의 학생 성적 분포를 파악했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9분 해질 18시 30분 달출 08시 31분 달몰 21시 50분

미세먼지 '보통'

오후에 비 내리는 곳 있겠다.

광주	가끔흐리고비	1/12°C
목포	가끔흐리고비	1/11°C
여수	비	5/10°C
나주	가끔흐리고비	-2/12°C
완도	가끔흐리고비	3/10°C
구례	가끔흐리고비	0/11°C
강진	가끔흐리고비	0/11°C
해남	가끔흐리고비	-1/10°C
장흥	가끔흐리고비	-1/11°C
순천	가끔흐리고비	2/11°C
영광	흐림	-2/11°C
진도	가끔흐리고비	1/9°C
전주	흐림	0/13°C
군산	흐림	0/11°C
남원	흐림	-2/13°C
혁신도	흐림	5/9°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m 0.5~1.0m 관심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1.0~2.0m 관심 높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목포 04:10 09:17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16:29 21:3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여수 11:11 04:48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23:31 17:10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주방기상청)

날짜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날씨						
최저/최고	2/8	-2/7	-1/8	1/10	1/11	3/12

'따뜻한 봄' 야외활동 하기 딱 좋은 날씨

이달 하순께 꽃샘추위 올듯...건강관리 주의 요구

올해 광주·전남지역은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된 가운데 바깥활동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달 하순까지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는데, 기온 차이도 커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이달 하순엔 기온이 평년기온(8~9도)보다 1~2도 정도 높겠으나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기적인 날씨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량은 20~30mm로 평년보다 많겠다.

한편, 기상청은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4일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10mm.

이번 비는 4일 늦은 밤부터 그칠 전망이다. 5일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6일부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당분간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다.

학생 인성수준 첫 검사

내달 전국 4만5000명 대상

정부가 초·중·고등학생의 인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도구를 개발, 전국적인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상하자 학생들이 실제 어떤 부분의 인성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등학교 5학년 생, 중학교 2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 생 각 1만5000명씩 모두 4만5000명을 표집해 인성 검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NEW

그린알로에 "그린퍼맨 프로바이오-50" 출시!

살아있는 유산균 5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로 장건강을 챙기세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지키는 **장** 건강

"그린퍼맨파이오-50"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부원료로 곡류혼합효소 발효분말 과일혼합효소발효분말 비타민C, 건조효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린알로에는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가 함유되지 않은 3주제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고객상담실 080-234-6588

배변활동 원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산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